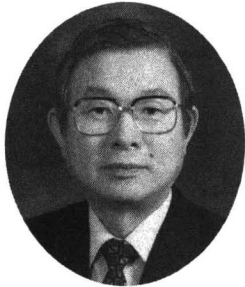


희망과 발전의 한해가 되기를...



조 규 상
대한산업보건협회장

丙子 年の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산업보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일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대형사고와 부끄러운 정계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과거 수십년간 경제발전이라는 지상목표속에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삶의 참된 것을 잊어왔습니다. 인명의 소중, 너와 나의 귀중함을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보건문제도 등한시한채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에 이들을 생활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감과 직업관에 철저할때 삶의 참된 보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목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장 좋은 보건을 갖게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협회는 올해도 정부시책에 따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산업보건은 봉사와 기술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봉사정신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고로 우리는 수준높은 봉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 학구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하며 연구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산업의학의 전문의 제도도 시작됨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보건은 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여러 분야의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관리를 주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분야가 협력하므로써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산업보건사업은 넓은 분야에 걸쳐있는데 그 핵심은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요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물질안전보건자료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센서스를 만들어 여기서부터 모든 계획을 짜내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국제 표준기준하에서 노동과 환경문제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비약적으로 외국에 진출하여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가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과거의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 산업보건도 도약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근로자가 고마워하고 사용자 희망하는 산업보건사업이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은 30년의 전통을 가지고 대학이 주도하여 학문적으로 학제속에서 이끌어 왔습니다. 이 좋은 전통을 살려 희망과 발전의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새해의 아침



윤 임 중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장

새해 를 다시 맞고 있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희망을 갖게되는 것은 너와 나의 주위가 변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발전하는 보람된 변화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란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굴복하면 허탈에 빠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좌절은 우리에게 한하지 않고 천만 근로자의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실로 경악스러운 많은 일을 경험해야 했음에도 오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제도의 변화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무거운 이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인내와 노력 그리고 슬기로우므로 이를 극복하고 내일의 보다 큰 기쁨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국 구석구석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분!

지난해 노고에 몇번이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노고가 있었기에 근로자 여러분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기업은 그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생산물의 수출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땅위에 모여사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식



정 봉 석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장

국내 적으로 다사다난하고 인재에 의한 많은 사고와 사회도덕적규범이 불법과 부도덕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하고 국민은 불안하던 乙亥年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95년에는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중 일반건강진단 사업이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전준비 부족, 전문기관의 의견참여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욱 발전된 건강진단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 사업장의 일반검진 누락 방지와 내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일과성인 검진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건강상담을 하고 예후를 관찰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항목을 추가 또는 보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丙子年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와 내일을 준비하는 노력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식을 가지고 임할때 국가나 사회나 국제나 개인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